

**PRESSBOOK**

Emmanuel Perrotin  
*Harper's Bazaar Art Korea*

*October 2014*



Harper's Bazaar Art Korea  
October 2014

파리를 본거지로 뉴욕과 홍콩에도 갤러리를 오픈한 페로탱 갤러리의 대표  
엠마뉴엘 페로탱. 그가 공개한 24시간.

# EMMANUEL PERROTIN 24 HOURS

MY LIST  
3곳의 도시, 7곳의 레스토랑과 4곳의 클럽,  
12명의 아티스트.

064 HARPER'S BAZAAR ART

ARTE/Quilbarnet Zicorell  
Couturier/Christian Dior



## Harper's Bazaar Art Korea October 2014



파올라 피비(Paola Pivi)의 2013년 작품 'Who Told You White Men Can Jump?'와 포즈를 취한 엄마뉴엘 페로텔

**8:00 A.M.** 아침엔 베이지색과 흰색으로 채워진, 단순하고 편안한 침실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려 한다. 페로텔 갤러리가 있는 파리와 뉴욕, 홍콩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기에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갖는 이런 여유는 일상의 중요한 밸런스가 되기 때문이다. 한 해 대부분을 파리에서 보내긴 하지만 뉴욕과 홍콩 갤러리에서 전시 오프닝과 이벤트가 열릴 때면 여지없이 비행기에 오른다. 아트 페어와 소속 작가들의 페로텔이 아닌 곳에서의 전시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여행은 더 잦아진다. 최근에는 파리 갤러리가 위치한 마레 지구로 이사를 했다. 새 집은 17세기에 지어진 저택인데, 외부는 화려한 예전 모습 그대로지만 내부는 모던하게 레노베이션을 한 곳이다. 아파트 한쪽 벽면엔 중정 쪽으로 커다란 창이 나 있다. 요즘은 거기서 자라는 푸른 식물들을 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다. 밤새 쌓인 아시아 쪽 일을 처리해야만 한다. 급한 이메일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셔츠와 카디건, 데님 팬츠에 스니커즈를 신고 집을 나선다. 스니커즈를 고를 때 시간이 좀 걸린다. 끊임없이 사는 통에 가지고 있는 스니커즈 개수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피에르 아르디 스니커즈는 언제나 사지 않을 수가 없다. **9:30 A.M.** 파리에선 갤러리 근처의 카페 르 콤플루아 뤼렌(Le Comptoir Turenne)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아침을 먹으면서 첫 미팅을 하고, 이메일을 체크한다. 뉴욕에서는 시차 때문에 더 이른 시각에 잠을 깨곤 한다. 그러면 매디슨 애비뉴에 있는 뉴욕 페로텔 갤러리 맞은편의 카페 겸 레스토랑 비아 카르다노(Via Quadranno)에서 아침을 먹는다. 작년 이맘때쯤 갤러리의 오프닝을 앞두고 모든 업무를 해결한 곳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비아 카르다노를 우리 사무실인 줄 알았으니,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거다.

**11:00 A.M.** 파리와 홍콩 갤러리는 11시에, 뉴욕 갤러리는 10시에 문을 연다. 문을 연 지 한 시간쯤 뒤에 들려 개인 비서를 만나 전시 공간 조율이나 오프닝 파티 준비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1:00 P.M.** 수집가나 소속 작가, 친구들과 정상을 먹을 땐 오후 1시로 약속을 잡는다. 혼자서 먹을 땐 오후 2시경으로 늦어지곤 하지만, 파리에 있을 땐 언제나 갤러리 근처의 예스러운 레스토랑 카페 데 유제(Café des Musées)에서 앙송이버섯 요리나 비고르산 흑돼지등심 요리 같은 걸 먹는다. 뤼렌가에 있는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 풀비오(Fulvio)도 자주 간다. 주인 풀비오는 파스타의 한 종류인 탈리아텔레의 역사라든가 자기 요리에 대해 한 시간도 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열정적인 친구다. 거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명란 파스타다. **3:00 P.M.** 뉴욕에 있을 땐 소속 작가들의 작업실에 들른다. 내가 존경하는 작가들의 작업실도 빼먹지 않는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찾아 나서는 건 내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지 구상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매디슨 애비뉴와 73가가 만나는 곳에 있는 뉴욕의 페로텔 갤러리는 뉴욕은행 본사가 있던 건물에 위치해 있다. 세계적 미술관과 핵심 갤러리들과 함께, 어퍼 이스트 사이드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때문에 뉴욕 갤러리 주변엔 언제나 볼 것 천지다. 하지만 파리에 있을 땐 그럴 시간이 없다. 세 도시의 갤러리 비즈니스를 이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일에 파묻혀 헛헛해진 마음은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보상받는다. **5:00 P.M.** 어느 도시에 있든 간에 나는 오후 내내 갤러리에서 일을 한다. 전시를 찾은 컬렉터들과 친구들을 맞이해 좋은 시간대이기도 하니 더욱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빛, 소리, 전기에너지 등의 비가시적인 자연 현상을 미디어, 페인팅, 조각 등의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는 로랑 그라스(Laurent Grasso)의 대형 개인전을 준비하는 중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하나인 그의 작품으로 파리 갤러리를 메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짜릿하다. 지난 5월엔 파리 갤러리 근처에 새로운 공간을 오픈했는데(사실으로 유명하던 인물의 저택 안, 무도회장으로 쓰이던 공간을 레노베이션했다). 오픈 기념전으로 친구인 퍼셀 윌리엄스를 초청했다. 전시에 그의 새 앨범 <GIRL>과 같은 이름을 붙이고, 그가 직접 큐레이팅을 하도록 한 것. 오프닝 때 열린 프라이빗 파티에서 퍼셀이 공연을 할 때의 열기는 아직도 생생하다. 현재 뉴욕에서는 이런 작가 파파도 모시리(Farhad Moshiri)의 전시를 선보이고 있고, 홍콩에서는 티로 하인츠만(Thilo Heinzmann)의 개인전을 아시아 최초로 열고 있다. **7:00 P.M.** 7시는 파리와 홍콩 갤러리가 문을 닫는 시간이라 이때쯤엔 친구들을 만나 다른 전시 오프닝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디지털 허구와 현실 사이에 놓인 좀더한 경계를 다룬 <그녀>다. **8:00 P.M.** 최근 이사하고 나서 몇 주째 사람들을 불러 집에서 파티를 열고 있던 것만 같다. 기본적으로 저녁엔 나가서 먹는 편이다. 홍콩에 가면 야드버드(Yardbird)라는 일식집을 찾곤 하는데, 입구에 들어서면 유명인사와 정재계 인물들의 얼굴이 보이곤 한다. 이곳에서 선보이는 새롭고 신선한 요리 중 내가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건 한국식 양배추튀김이나 닭육아키토리 같은 메뉴다. 파리에선 르 판돔(Le Fantôme)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친구인 로랑 페티(Laurent Fétis)가 이곳의 레트로-퓨처리스틱 공간을 디자인한 장본인이다. 뉴욕에선 미트패킹 지역 한가운데 있는 더 스탠더드(The Standard)에 간다. 구겐하임의 마우리치오 카텔라 전시 오프닝 때 애프터 파티가 열렸던 곳으로 허드슨 강이 내려다보이는 옥상 테라스와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모두에 후한 별점을 주고 싶다. **11:00 P.M.** 요즘엔 클럽에 잘 가지 않는 편이다. 물론 친구가 운영 하는 클럽 르 바롱(Le Baron) 그리고 데이비드 린치의 언더그라운드 나이트클럽 르 실렌시오(Le Silenzio)에는 가끔 가지만. 실렌시오에선 전시의 오프닝 애프터 파티를 열기도 했다. 홍콩에 있을 때는 윈드햄가에 있는 살롱 넘버 10(Salon Number 10)을 즐겨 찾는다. 마치 쥘 베른의 소설 속 잠수함을 연상시키는 내부 데커레이션의 독특함에 반해 전시 오프닝 파티를 열었던 곳이었다. 홍콩에선 시차 때문에 밤 시간에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는 게 문제다. 숙취로 고생하는 아침이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결심해도, 시차라는 캠페인 앞에선 소용없다. 뉴욕에선 브로드웨이 나이트클럽 아크메(Acme)에 간다. 이곳에선 갈 때마다 늘 즐거운 일이 펼쳐지고 했다.

**12:00 A.M.** 뉴욕에 있을 땐 파리 집만큼 편한 더 서리(The Surrey) 호텔을 숙소로 한다.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곳이다. 홍콩에서는 항구 쪽으로 내려보이는 뷰가 기가 막히는 어퍼 하우스(Upper House)에 머문다. 앙드레 푸(André Fu)는 이곳과 포시즌, 레인 크로프트를 디자인한 건축가로, 개인적으로 그의 건물 속 부드러운 컬러와 거대한 볼륨, 쏟아지는 빛이 좋아 홍콩 갤러리를 오픈할 때 그에게 작업을 요청했다. 홍콩 갤러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는 11월 26일부터 소피 칼과 마크로 아이다의 전시가 열린다는 걸 꼭 <바자 아트> 독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싶다. **11** 미디어/인홍선